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라카타시 시장의 후시미 다카시입니다.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증환자가 급증해 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 오사카에서는 몇일전 독자 기준인 “오사카 모델”의 경계도를 비상사태를 나타내는 “레드 스테이지”로 이행했습니다.

이대로의 페이스로 감염이 계속 확대하면 가까운 장래 감염자수가 병상수를 넘어 많은 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이른바 의료 붕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11월에 들어서면서 재확대가 계속되어 의료 현장에서는 병상이나 종사자의 부족이 심각해 오고 있습니다.

또 몇일전에도 본 시내의 여러 고령자 시설에서 클러스터가 발생하는 등 보건·복지의 현장도 포함하여 향후 추가 대책·체제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 붕괴를 일으킬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해서 매우 괴로운 결단이었지만 여러분의 생명이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 12월 7일부터 15일까지의 사이 생야학습시민센터나 스포츠 센터 등 시 소관 시설의 이용을 중지하는 것으로 하고 또 시가 주최·공동개최하는 이벤트에 대해서도 중지 또는 연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해 크리스마스나 첫 참배 등 사람들이 모이는 기회의 많은 시기가 됩니다.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도 지금이 대국면입니다. 감염 확대가 수습할 때까지는 가능한 한 외출을 앞두어 주시고 감염 확대 방지에 노력해 주시도록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전되지 않는다” “이전안한다 ” 라는 강한 마음으로 계속해 협력해 주시길 잘 부탁드립니다.

레외와 2년 12월 7일

히라카타 시장 후시미 다카시

伏見隆